대행 선사 '사상 로드맵', 데이터로 그려내다

9월 29일,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토픽 모델링'으로 〈한마음요전〉 분석
마음 · 주인공 등 선사 법문 키워드
실존부터 수행까지 5개 주제 형성
주제별 독립 · 연관성 동시 구성돼
'주인공' 사상, 중심개념 정량 확인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20일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4회 계절발표회에서 김두식 연구원이 '한마음요전의 토픽 분석을 통한 대행 선사 사상의 다층적 구조 연구'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행선연구원 제24회 계절발표회 참가자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I가 상용화되면서 올바른 정보를 분석해 데이터화하는 것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떠오르는 분석 기법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고, 그중에서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숨겨진 주제(토픽)를 찾아내는 데 탁월한 계량적 분석 도구로 평가된다. 대행 선사(2017~2012)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집성한 〈한마음요전〉을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학: 데이터로 읽는 지식과 수행'을 주제로 제2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분석 방법론이 불교학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한마음요전〉의 토픽 분석을 통한 대행 선사 사상의 다층적 구조 연구'에서 〈한마음요전〉 내 대행 선사의 법문을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김 연구원은 〈한마음요전〉을 분석해 △마음 △생각 △부처 △주인공 △사람 등의 단어가 상위 출현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출현 빈도를 통해 확인된 키워드를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한마음요전〉의 주요 담론이 △불성론적 주체성과 신심의 구조 △실존적 자각과 육신성의 인식 △사회적 실천과 관계론적 존재론 △시공간적 전체성과 우주적 인식 △수행론적 통합과 실천적 완성 등 다섯 가지 토픽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섯 가지 토픽들은 17~23% 정도로 균등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불교학의 핵심 범주와 체계적 관계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드라망'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토픽-1부터 토픽-5까지 각각 실존론-존재론-관계론-우주론-수행론에 해당하는 불교학의 기본 범주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대행 사상의 체계적 완결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각 토픽들의 비중이 극단적 편차 없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은 대행 선사의 법문이 특정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불교 사상의 전 영역을 균형 있게 다뤘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마음요전〉이 단편적 법문집이 아닌 종합적 사상서임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 사상의 핵심인 '주인공' 개념이 전 토픽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것도 이번 연구의 큰 특징이다.

김 연구원은 "토픽-1부터 토픽-5까지 '주인공'이 핵심 키워드로 기능하는 것은 이 개념이 대행 선사 사상의 시작점이자 목표점의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면서 "전통적 불성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재구성한 이러한 시도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적응 기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와 함께 권호진 SBS미디어넷 국장은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동향 : 불교, 기독교, 가톨릭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2002~2025년 발표된 '종교커뮤니케이션' 주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논문 478편을 시대·주제별로 분석하고, 최근에는 어떤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혁신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지 조명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권 국장은 "불교는 '안정형-점진적 성장형' 모델로 꾸준한 연구를 이어 왔고, 개신교는 '확장형-지속성장형'으로 세 종교 중 가장 활발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했다. 가톨릭은 '간헐형-사건의존형'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 종교는 모두 '사회·문화·참여'라는 공통적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 불교는 대중적 확산과 매체 활용, 개신교는 공동체 중심 신앙 전승, 가톨릭은 교리 전통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현대 사회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강재원)와 공동 주최한 이날 계절발표회는 지난해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KCI 등재지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다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시도하는 첫 발표회여서 의미를 더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한마음연구〉의 KCI 등재 이후 대행선연구원의 위상도 상승했다.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의 공동 발표회를 열 수 있던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면서 "'종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지만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이다. 이 같은 기술이 정말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용자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늘 발표도 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재원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단부터 미디어, 전략적 설득 기법까지 다양하며 이를 통한 학제 간 연구도 활성화 되고 있다"며 "종교 커뮤니케이션 연구도 그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원 대중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절발표회에서는 묘공학술상 수상작도 소개됐다. 2022년 제4회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인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묘공 대행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가정하여'를 발표했다.

문화사업단·한식진흥원 "사찰음식, 세계로"

9월 24일 업무협약… 사찰음식 홍보 등 협력 추진
일화 스님 "사찰음식 정신, 세계인에 큰 울림 줄 것"

사찰음식과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연구하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식진흥원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9월 24일 서울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식문화 진흥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화사업단이 '사찰음식' 단일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식진흥원이 처음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음식의 계승과 발전, 한식의 국내외 확산 및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찰음식 자원과 전문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또한 사찰음식과 한식이 지닌 생명 존중·자연 순환·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홍보·전시·조리체험·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국내외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나아가 청정한 먹거리와 수행 음식의 철학을 반영한 홍보 사업을 펼치고, 상호 교육 콘텐츠 협력과 행사 지원,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과 '한식문화공간 이음' 간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교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오늘의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의 전문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식문화인 '한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김장 문화', '장 담그기 문화'에 이어서 사찰음식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음식 관련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일학 스님,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지도법사 하경 스님, 김한일 문화사업단 사무차장, 전해웅 한식진흥원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한식진흥원은 11월 16일까지 특별전 '자연과 함께 짓는 밥상, 사찰음식'을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사진 오른쪽)과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9월 24일 서울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야불교문화硏, 산사 인문학 강좌

10월 11일~11월 15일
매주 토요일 반야암서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이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2025년 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원효 성사의 생애의 가르침'(10월 11일) 오용석 원광대 교수의 '보조국사의 생애와 가르침'(10월 18일) △김희 강원대 교수의 '서산 대사의 생애와 가르침'(10월 25일)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경허 선사의 생애와 가르침'(11월 1일)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의 '경봉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11월 8일)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의 '성철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11월 15일) 등 총 6강이 진행된다.

010-8738-3000

신중일 기자



